

사람과 사회

딱딱딱... 그동안 대중들이 원하는 음악을 했었다면 이제 대중이 저한테 끌려 오게 할 때가 됐다고 본다. -가수 겸 영화배우 엄정화, 2년만에 새 앨범을 내면서 자연스러우면서도 강한 느낌을 주는데 초점을 맞췄다.



의협 "건보제도 개혁을" 서울 여의도 63빌딩 앞 한강둔치에서 22일 대한의사회 주최로 열린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 전국 의사결의대회'에서 의협 회원 2만여명(경찰 추산)이 건보보험제도 개혁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여의도와 이웃 올림픽대로 일대는 이들이 타고 온 버스 400여대가 늘어서 극심한 교통혼잡이 빚어졌다. 안주영기자 jya@

아름다운 후학 사랑

‘速記 대부’ 남상천씨 연구·장학금 10억 기부

‘한국 속기(速記)의 대부’ 격인 남상천(75)씨가 젊은 학생들에게 속기를 전수하기 위해 강단에 선다. 남씨는 후학들이 속기를 연구하고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10억원대의 재력을 모교인 성균관대에 기증했다.

●디지털 세대에 속기 전수
남씨는 22일 “펜 한자루와 종이 한 장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초고속 메모’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컴퓨터와 붙어오기 힘들 수 있다.”고 자신했다. 성균관대 법률학과 56학번인 그는 속기가 실업계 고교 정규 교과과정으로 지정된 70년대까지 농림부와 농협중앙회에 근무하면서 속기 전도사로 전국에 이름을 떨쳤다. 대학 입학 직후 ‘남천식 속기법’을 만들어 보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80년대 들어 공직을 청산하고 사업에 뛰어들어 20년 남짓 ‘외도’를 했다. 1983년 음식산업에 뛰어들어 ‘아침햇살’ 등 보리와 현미음료 제조기술로 특허를 출원해 ‘대박’을 터뜨렸다. ‘이 정도면 됐다.’ 싶어 은퇴를 결심한 2001년 재산을 정리하다 우연히 색바랜 속기 교과서가 눈에 들어왔다.

“내가 없으면 속기라는 걸 기억하는 사람도 없겠다고 생각하니 잠을 수가 없어야죠. 사업 성공한 것도 그걸 기반으로 속기학을 살리라는 하늘의 뜻이었구나 싶더라고요.”

●모교에 장학금과 속기 부설연구소 기증
그는 그때부터 각 대학을 돌며 속기 강의를 맡았다고 설득작업을 벌였다. 20여개 대학에 속기 강의를 제안한 끝에 올 1학기부터 성균관대와 홍익대에서 새로 개설된 속기학 강의를 맡게 됐다. 성균관대의 경우 지난 20일 재학생 수강신청을 마감한 결과 60여명이 몰렸다. 신입생 수강신청 기간인 이번 주에는 총정원 80명을 훌쩍 넘길 것으로 학교측은 전망하고 있다.

남씨는 얼마전 부인(71)과 1남 2녀 등 가족들을 불러놓고 모교에 10억원대의 서울 양천구 목동 자택을 기증하겠다는 유언장을 작성했다. 학교내 속기 부설연구소를 건립하고,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데 사용하기 위해서다. 자식들이 서운해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남씨는 “속기를 배우겠다는 젊은이는 모



‘남천식 속기법’의 창시자로 3월부터 대학 강단에서 속기법을 강의하는 남상천(75)씨가 22일 서울 양천구 목동 연구소에서 교본을 들어보이며 속기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다. 이연탁기자 ut@

두 내 자식’이라면서 “3년 안에 이들을 다 내 자식으로 만들 자신이 있다.”고 환하게 웃었다.

●한 음절이 한 획, 가장 경제적인 기록법
‘남천식 속기법’의 원리는 간단명료하다. 한 음절은 한 획으로 표기한다. ‘서울신문’을 한글로 쓰자면 총 20획이지만 속기로 쓰자면 4획이면 된다. 또 발음나는 대로 표기한다. 쓰이는 받침도 ‘ㄱ, ㄴ, ㄷ, ㄹ, ㅂ, ㅅ, ㅇ’ 7개뿐이다. 발음이 같은 ‘낫’, ‘낫’, ‘낫’은 모두 ‘낫’으로 적는다.

속기문자의 모양은 빈도수와 관련이 있다. 가로획을 쓰는 속도가 가장 빠르다는 점에 착안. 국어를 분석해 많이 쓰이는 문자일수록 가로(一)·대각선(/)·세로(|)획 순으로 기본모양을 만들었다. 남씨는 “30시간만 배우면 강의나 대학 등 연설체 문장을 5분에 1600자까지 받아적할 수 있다.”고 자랑했다.

유지혜기자 wisep@

‘EBS수능’ 스타강사 총집합?

인선 막바지... 이석록·박승동·최강씨 등 낙점

오는 4월1일부터 실시되는 교육방송(EBS)의 수능시험 강의에서 이른바 ‘스타강사’들이 강의를 맡는다. 교육방송은 현재 10여명의 유명 강사로부터 이력서를 받고 인터뷰를 하는 등 인선 작업을 진행중이며, 일부는 수락했다고 밝혔다.

교육방송 관계자는 22일 “4명 정도가 인선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이 가운데 1명은 아직까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EBS가 초빙할 강사진은 강남 대성학원 박승동(42·수리영역)씨, 강남 최강학원 원장 최강(40·사회탐구)씨, 온라인 입시업체 메가스터디 출신 이범(34·과학탐구)씨, 전 서울 화곡고 교사 이석록(46·언어영역)씨 등이다.

“족집게 교사”로 이름을 날리다 최근

사실 입시학원으로 옮겨 화제가 됐던 이석록씨는 “더 많은 일반 학생들이 무상으로 교육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내신 평가 기준이 없는데 내신반영 비율을 높이는 것은 모순”이라며 교육부의 내신비중 강화 대책을 비판했다.

지난 90년부터 6년 남짓 교육방송에서 강의한 경력에 있는 박씨는 “아무리 스타강사가 방송과 인터넷에 출연해도 학생들의 열의나 태도에 성패가 달렸다.”면서 “스타강사는 돈을 많이 버는 강사가 아니라 강의력을 학생들에게 인정받는 ‘강사력 스타’를 말한다.”고 주장했다.

강남 압구정동과 대치동에 사회탐구 전문학원을 운영중인 최씨는 “수강생들

을 상대로 자체 조사한 결과 학원강사가 무료로 전국에 배포된다면 학원에 계속 다니겠다는 학생이 10% 미만이었다.”고 소개하고 “강의를 맡게 되면 더 많은 학생에게 최고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7년 남짓 이름을 날리던 학원가를 지난 해 10월 초 떠난 뒤 출판사를 설립, 공익 목적의 무료강의를 구상해 왔다는 이범씨는 “교육방송의 제안으로 생각보다 일찍 무료강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지역별·학교별로 학력수준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내신비중을 강화하는 것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수능 시험은 등급별 편성에 따른 자격기준으로만 활용하고 논술과 심층면접을 강화하

면 공교육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채수범기자 lokavid@

안부총리 “내신 부풀리기 막겠다”

안병영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2008학년도 대학입시부터 내신 위주 전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일선고교의 ‘점수 부풀리기’를 막을 방안을 8월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22일 말했다.

안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 “교육혁신위원회를 통해 내신 부풀리기를 할 수 없도록, 또 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해 2008학년도 이후 대입제도 개선안을 8월 말까지 마련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박홍기기자 hkpark@

‘왕따 동영상’ 중학교장 자살

자택서 흉기로 가슴 찢러

최근 인터넷에 유포돼 물의를 빚은 ‘왕따 동영상’ 파문이 발생한 경남 창원시 반림중학교 윤용웅(60) 교장이 22일 자살했다. 창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윤 교장이 이날 오후 7시 18분쯤 명서동 자택 거실에서 왼쪽 가슴을 흉기로 찢은 뒤 신음 증인 것을 부인 김모(58·여)씨가 발견했다.

김씨는 “남편이 함께 있다가 담배 심부름을 시켜 나갔다 돌아오니 피를 흘리며 거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고 말했다.

윤 교장은 가족들에 의해 창원 파타마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병원에 도착할 당시에는 이미 숨져 있었다. 윤 교장의 시신을 검안한 파타마병원 응급의는 “왼쪽 가슴에 길이 5cm, 깊이 20cm의 큰 상처가 나 있는 상태였다.”면서 “윤씨가 자살을 망설인 듯 가슴에는 3~4군데의 얇은 상처도 함께 발견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윤 교장이 왕따 동영상 문제로 고민하다 자살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왕따 동영상은 이 학교 3학년 C(16)군이 5~6명의 학생과 함께 같은반 친구 J

(16)군을 괴롭히는 모습을 직접 촬영,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것이다. 특히 동영상의 일부는 수업중인 교실에서 촬영된 것으로 밝혀져 물의를 빚었다.

이후 동영상에 각종 인터넷 게시판에 번지고 언론에도 보도되면서 파문이 커지자 윤 교장은 20일 경남도교육청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또 창원지방경찰청은 윤 교장과 담임교사, 학생을 조사했으며, 최근 피해자 A군의 부모가 윤 교장을 고소했다에 취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서가 있는지 여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창원 이정규기자 jeong@

리츠社 이사 “건평씨 네번 만나”

‘關편드’ 구멍 로비여부 조사

노무현 대통령 사단 민경찬씨의 653억 원 모금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金泰熙)는 22일 부동산투자기업체인 C리츠의 등기이사 방모(60)씨가 “최근 노 대통령의 형 건평씨와 여러 차례 만났다.”고 진술한 것과 관련, 구체적인 경위를 조사중이다.

방씨는 앞서 이날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 심사때 “최근 4차례 건평씨 자택을 찾아가 ‘문제를 일으킨 쪽에서 수습해야 할 것 아니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방씨가 검찰수사를 의식, 건평씨를 찾아가 민씨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면서 자신에 대한 구멍을 부탁했을 것으로 보고 경위를 확인중이다. 박홍기기자 stinger@

울산 여대생 피살사건

고교시절 교사가 용의자

울산시 상북면 가지산 골짜기에서 지난 8일 목졸려 숨진 채 발견된 여대생 최모(21·부산 D여대 유아교육학과 2년)씨 범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울산지방경찰청은 22일 최씨의 고교 시절 교사였던 정모(40·교사)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체포해 조사를 하고 있다.

경찰은 최씨가 숨지기 전까지 사귀어 온 것으로 알려진 정씨의 승용차 뒷좌석 바닥에서 발견된 혈흔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뢰해 감식한 결과, 최씨와 DNA가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씨가 자신이 근무하던 고교 2학년이던 최씨를 만나 사귀어 왔으며, 최씨가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지난달 6일) 다음날 새벽에 귀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씨가 혐의사실을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으나 보강조사를 벌여 23일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은 정씨가 숨진 최씨와 사제 이상의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고 했다가 승용차 안의 혈흔을 추궁하자 성관계에 따른 것이라고 하는 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다고 밝혔다. 울산 김원식기자 kws@

포천 보험설계사 살해범 2명 체포

실종 한달만에 시신 찾아

포천 여 보험설계사 A모(47)씨 실종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도 포천경찰서는 22일 보험가입을 미끼로 금품을 빼앗으려 A씨를 살해한 용의자 심모(34), 신모(35) 등 2명을 강도살인, 사체유기 혐의로 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심씨의 진술에 따라 이날 오전 9시 쯤 포천시 이동면 도령리 광덕산 8부능선 계곡에서 A씨의 시체를 찾아냈다.

경찰은 이들 2명이 A씨 실종당일 마지막으로 A씨와 휴대전화로 통화한 후 지난 11일 서울 강북구 수유동 R호텔에서 목을 매 자살한 오모(37)씨와 공모, A씨를 살해한 사실을 자백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심씨 등은 자살한 오씨와 함께 지난달 20일 오후 2시쯤 ‘화재보험에 가입하겠다.’며 A씨를 포천시 가산면 금현리 창고로 유인, 1000만원을 요구하다 A씨가 거절하자 3000여만원이 예금된 통장과 신용카드 11장을 빼앗았다.

이들은 비밀번호를 알아내려다 A씨가 반항

하자 정태이프로 눈과 입을 가리고 노끈으로 목졸라 살해한 후 시신을 A씨 아반떼 승용차 뒷좌석에 싣고 다니다 오후 6시쯤 광덕산 20m 계곡 아래로 던졌다.

경찰 조사결과 심씨는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신씨와 오씨는 빚을 갚고 사업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역대 연봉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A씨를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심씨와 오씨는 한때 서울 동대문시장 의류상가 친목계원이었고 오씨와 신씨는 고향 친구. 신씨와 살해된 A씨는 10여년 전부터 아는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살한 오씨의 통화내역 조회결과 포천지역에서 통화한 심씨를 용의자로 추적 중 도피한 사실을 확인하고, 21일 오후 5시40분쯤 심씨 애인이 사는 대구시 남구 봉덕1동 공공전화 부스에서 통화중인 심씨를 붙잡았다. 신씨는 22일 오전 11시쯤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 검거됐다.

살해된 A씨는 지난달 20일 “땀을 보러 나왔다.”며 집을 나간 뒤 실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포천 현만교기자 mghann@

담배자판기 ‘성인 인증’ 장치

앞으로 만 20세 미만 미성년자는 담배를 살 수 없도록 자판기에 성인 인증 장치가 부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오는 7월말부터 시행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자판기에 부착된 센서가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

증을 판독, 20세 미만자에 대해서는 담배를 판매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자판기 운영업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읽을 수 있는 판독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편의점 등의 경우 미성년자에게 담배를 못 팔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자판기는 무방비 상태”라며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흡연을 막기 위해 자판기에 대해서도 규제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sskim@